

동양관광 알래스카 로얄 Discovery 프린세스 크루즈 7DAYS (6/21~6/29/2024)

일 자	장 소	세 부 일 정
6/21 (금)	호놀룰루 DL#440	호놀룰루 델타 항공 * 체크인 카운트 저녁 7시 미팅 저녁 9:45 출발
6/22 (토)	시애틀 로열프린세스	<p>시애틀 공항 오전 6:42 도착</p> <p>크루즈 회사 버스로 크루즈 터미널 이동하여 승선 (12:00N), 체크인 후 크루즈 선상 점심</p> <p>크루즈 승선 완료 후 출항 (3:00PM)</p> <p>인사이드 패시지를 향하여 출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선상 부대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p>
6/23 (일)	AT SEA	<p>◆ 인사이드 패시지(Inside Passage)</p> <p>알래스카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1,600km의 뱃길 인사이드 패시지를 향해하며 호수같은 바다의 또다른 풍경을 감상</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선상 프로그램, 쇼, 먹거리 등 특별한 경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 저녁-웰컴 파티</p>
6/24 (월)	주노 (Juneau)	<p>◆ 주노(Juneau) 입항 1:00P 출항 10:00PM</p> <p>알래스카주의 주도인 주노는 금광 채굴로 정착이 시작된 도시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금이 많이 채굴된 곳. 주노에는 다채로운 관광 명소와 빙하, 바다, 산이 함께 어루러진 절경들이 가득한 곳이며 특별히 멘델홀 빙하에서 거대한 얼음동굴을 탐험할 수 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추천 선택 관광 : 멘델홀 빙하 \$59.95</p>
6/25 (화)	스카그웨이 (Skagway)	<p>◆ 스캐그웨이 (Skagway) 입항 7:00AM 출항 8:30PM</p> <p>스캐그웨이라는 이름은 알래스카 원주민 인디언 말로 "북풍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 골드러쉬 때에 금광을 찾아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형성된 도시이다. 스캐그웨이 시내의 건물들은 골드러쉬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여 마치 영화의 세트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추천 선택 관광 : White Pass & Yukon Route Railway \$149.95</p>
6/26 (수)	글레이셔베이 (Glacier Bay)	<p>◆ 빙하 국립공원(Glacier Bay) 입항 6:00AM 출항 3:00PM</p> <p>알래스카 크루즈의 하이라이트 -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록된 빙하 국립공원 그레이셔 베이!!</p> <p>알래스카주 서부에 위치한 그레이셔 베이의 빙하 국립공원은 산과 바다, 빙하의 아름다운 전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거대하게 우뚝 솟은 빙하와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웅장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며, 눈 앞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자연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선상투어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p> 
6/27 (목)	케치칸 (Ketchikan)	<p>◆ 케치칸 (Ketchikan) 입항 7:00AM 출항 1:00PM</p> <p>케치칸은 시내를 흐르는 작은 강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원주민 인디언 말의 "독수리의 펼친 날개"라는 뜻이다. 연어 통조림으로도 유명한 케치칸은 1887년에 연어, 납치 등의 풍부한 어획량을 따라 많은 미국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연어 통조림 공장이 세워졌고 도시가 형성되었다. 케치칸 시내를 거닐며 첫 개척자들의 자취를 느끼며 유명한 연어 요리와 클램 차우더(조개 크림 스프)도 맛볼 수 있다.</p> <p>** 저녁 - Farewell Party</p>  <p>★ 추천 선택 관광 : Duck Tour \$79.95 or Saxman Native Village Dance Performance & Totem Park \$69.95</p>
6/28 (금)	빅토리아 (Victoria)	<p>◆ 빅토리아 (Victoria) 입항 7:00PM 출항 11:59PM</p> <p>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도인 매력적인 항구도시 빅토리아에서 새로이 단장된 올드 타운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큰(Sunken)정원이 있는 부차드 가든 등을 볼 수 있다.</p> <p>▶ 여권, 영주권/ 미국 복수비자 필요</p> <p>★ 추천 선택 관광 : 빅토리아 시내관광 혹은 개별 관광</p>
6/29 (토)	시애틀 (토)	<p>시애틀 입항: 7:00AM</p> <p>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호텔 조식 후 하선, 크루즈 버스로 시애틀 공항 이동</p> <p>*시애틀 시내관광(옵션)-시간이 허락할 경우</p> <p>스타벅스 본점,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Needle of Space..</p> <p>점심- 개별식</p>  <p>시애틀 DL#693</p> <p>시애틀 공항으로 이동 시애틀 오후 3:50 출발 호놀룰루 오후7:01 도착</p> <p>****감사합니다.****</p>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불포함 사항

1. 각 기항지 옵션 관광
2. 선상팁(선실, 식당 등에서의 서비스 1일 1인당 \$18, 스위트\$18.50)**변동가능
3. 기항지 선택 관광, 선상 음료(소프트 드링크, 주류 등), 기타 개인비용